

 <b>한국문화원</b>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b>보 도 자 료</b>		LA한국문화원 <a href="http://www.kccla.org">www.kccla.org</a>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	
배포일시	2017.7.18 (화)	담당자	Tammy Chung 323-936-3015	

## 한국문화가 있는 날 <Encuentro: 조우> 공연

엔쿠엔트로 - 재즈 음악을 통한 다양한 문화의 조우



- ▶ 공연명 : 한국문화가 있는 날  
Encuentro (Encounter) 조우 - A cross-cultural exploration in jazz  
엔쿠엔트로 - 재즈를 통해 만난 다양한 문화의 조우
- ▶ 일시 : 2017년 7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 장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주최 : LA한국문화원, Kelly Che and the Chestondi Project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http://www.kccla.org)
- ▶ 첨부자료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한국문화가 있는 날** 7월 행사로 Kelly Che and the Chestondi Project의 <Encuentro (Encounter) 조우 - A cross-cultural exploration in jazz> 공연을 7월 26일(수) 오후 7시 30분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LA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출신의 재즈 뮤지션들이 한 무대에 모여 만드는 공연이다. Kelly Che and the Chestondi Project는 밴드 멤버들이 이탈리아계 미국인, 뉴욕 출신 푸에르토리코인, 한국계 쿠바인, 베네주엘라인 그리고 한국인 등 다양한 혈통 출신으로 이들 밴드 멤버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른 음악을 들으며 자랐지만, 지금은 다양한 재즈 밴드와 뮤지션, 영화와 TV 등 영역을 넓혀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빠른 템포의 스윙 재즈로 편곡한 한오백년, 한국의 3대 아리랑에 포함되어 있는 밀양 아리랑과 진도 아리랑, 뱃노래와 도라지 타령, 새야새야 파랑새야 등 한국의 전통 음악과 미국의 스윙 재즈, 사우스 어메리칸 음악, 페루 리듬과 라틴 재즈 등 다양한 음악을 하이브리드로 결합해 새로운 크로스오버 재즈를 들려줄 예정이다.

밴드의 리더인 Kelly Che는 "다인종 사회인 미국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는 곧 각 개인의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각 멤버의 음악의 근원들을 재즈와 섞어 공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 밴드 멤버들의 뿌리를 존중하듯 밴드 모두가 한국 문화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무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이번 한국문화가 있는 날 8월 행사로 특별히 미국내 다문화 현지 음악인들간의 다양한 음악을 교류하는 크로스오버 재즈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름밤 재즈음악을 통한 다양한 문화를 타민족 청중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마다 LA한국문화원에서 개최 되는 <한국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전시, 공연, 워크샵, 영화, 태권도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 한국문화가 있는 날 <Encuentro: 조우> (프로그램 /출연진)

## 1. 500 Years 한오백년

가장 슬픈 한국 민요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한오백년’을 빠른 템포의 스윙 재즈로 편곡하였다. 강원도 민요인 ‘한오백년’은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인네의 마음을 노래한 곡으로 대부분 발라드로 연주하고 있으나, 현대 분위기에 맞추어 재즈 리듬을 미디엄 업 템포의 스윙으로 편곡하고, 특히 드럼을 많이 사용하였다.

## 2. Bellflower Song 도라지 타령

도라지 타령은 경기도 지방 민요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과 북한에서 아직도 고르게 불리고 있는 전국적인 민요이다. 이 노래는 19 세기 말부터 불리기 시작해 1920 년대에 처음 채보되었다. 밝은 분위기의 세 박자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 원곡을 11 박자의 재즈곡으로 편곡하였다. 베이스의 테마를 노래 중간에 보컬과 피아노가 받고, 베이스는 솔로를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었다.

## 3. Milyang Arirang & Jindo Arirang 밀양 아리랑 & 진도 아리랑

아리랑은 2012 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무형 문화재로 등록된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유산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 3 대 아리랑 중에서 경상도 지방을 대표하는 ‘밀양 아리랑’과 전라도 지방을 대표하는 ‘진도 아리랑’을 재즈로 편곡해 선보이게 된다.

## 4. Pajaro Azul 새야새야 파랑새야

19 세기 초에 불리기 시작한 민요 ‘새야새야 파랑새야’는 클래식이나 합창곡 등으로 다양하게 편곡해 불린 곡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다양한 사우스 어메리칸 스타일 리듬을 가미해 새롭게 편곡하였다.

## 5. Sailor’s Song 뱃노래

경상도 지방의 대표 민요인 뱃노래를 신나는 라틴 재즈 분위기로 편곡해 새로운 느낌을 내었다. 또, ‘어기야디여차’가 나오는 노래 중간 부분은 6/8 박자로 바꾸어 앞부분과의 차별을 꾀하였다.

## 6. It’s Vain 어느새

1989 년에 발매된 대표적인 보사노바풍 가요인 ‘어느새’를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와 결합하였다.

## 7. You give Me Happiness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80 년대 대표적인 포크송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페루의 업템포 리듬인 ‘페스테호’로 편곡해 다른 느낌을 주었다. 이 곡은 특히, 드럼 그룹과 베이스의 솔로가 돋보이는 곡이다.

※ The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 <주요출연진 약력>

### Kelly Che – vocal

4 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8 살 때부터 합창단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공연과 연주를 해 왔다. 2001 년 LA 로 이주한 후 다양한 미디어에서 활동하며 로저 와그너 합창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2007 년 우연한 기회에 재즈 뮤지션을 만나 함께 활동하게 되면서 재즈 음악 활동을 시작하고, 유명 재즈 베이시스트 존 클레이튼, 그레미 3 관왕 수상자인 오스카 헤르난데즈까지 짧은 시간에 많은 음악인들과 작업하는 영광을 누렸다.

### Joe Rotondi – Piano

조 로톤디는 그의 아버지인 이태리계 미국인 조 로톤디 시니어에게서 피아노를 사사받았다. LA 토박이인 그는 할리우드 고등학교와 LACC 를 거쳐 재즈 빅 밴드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LA 에서 재즈와 라틴, 팝, 블루스를 넘나드는 피아니스트로 활동해 왔다. 그는 린다 론스태드, 허브 앨버트, 비키 카 등의 음악인들과 활동해 왔으며, 영화 ‘더티 댄싱’, ‘맘보 킹스’ 등의 사운드 트랙에도 참여했다.

### Edward Resto – Bass

뉴욕 맨하탄 출신의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 에드워드 레스토는 라틴 재즈계에서 가장 유명한 베이시스트 중 한 명이다. 15 세에 할아버지에게 베이스를 사사받고 바로 프로 음악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에디는 음악 활동을 시작한 2 년 만에 “마치토 오케스트라”, 그레미 9 관왕에 빛나는 피아니스트 에디 팔메리 밴드에서

활동하게 되고, 작년 헐리우드 볼에서도 연주한 라틴 재즈 팝 스타 루벤 블레이즈, 재즈 색소포니스트 소니 스틱, 디지 길레스피,오예 코모바의 원조 티토 푸엔테,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카를로스 산타나 등과 연주하였다. 어린 나이에 바로 프로 음악계에 입문하면서 정규 교육의 기회가 따로 없었던 그는 재작년 캘스테이트 주립 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 Joey De Leon – Percussion

라틴 재즈계에서 가장 바쁜 퍼커션 연주자인 조이 드 레옹은 원래 클래식 퍼커션을 공부하였다. 뉴욕 맨하탄 음악학교에서 음악 석사 후 어릴 때부터 들고 자란 라틴 음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재즈 뮤지션 판초 산체스 밴드의 퍼커션 연주자로 지난 5년째 활동중인 조이는 그래미 수상자인 아투로 산도발 밴드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오늘도 바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Aaron Serfaty – Drums

아론 세파티는 베네주엘라 출신으로 현재 USC 교수로 재직중이다. 15 세부터 드럼 연주를 시작해 17 세부터 프로페셔널로 활동하였다. 1991 년 미국 이주후 그는 다양한 연주 활동을 해 왔으며, 세르지오 멘데즈, 아투로 산도발, 오스카 헤르난데즈 등 다양한 음악인들과 함께했다. 그는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와 the Los Angeles College of Music 를 거쳐 USC 에서 후배 양성 작업에 힘쓰고 있다.

### Harry Kim – Trumpet, Flugelhorn

쿠바 출신인 해리 킴은 조부모가 쿠바로 이민을 간 100% 한국인이다. 스티비 원더에서 레이디 가가까지, 해리 킴은 현존 트럼펫 연주자 중 가장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음악인으로 꼽힌다. 마이클 잭슨의 문워커 첫 공연, 아메리칸 아이돌과 댄싱 위드 스타, 오프라 윈프리의 쇼, 그래미와 오스카 시상식까지 그의 음악적 행보는 현대 대중 음악의 행보와 함께 한다. 전 세계의 다양한 음악인과 함께 한 그는 1989 년에 필 콜린스와 만나 작업하면서 수십년간 그와 함께 일해 왔다. 2005 년부터는 ‘어메리칸 아이돌’ 밴드 관악 부문의 리더로서 8 년 넘게 일했으며 종종 그래미 시상식의 오프닝을 장식하곤 한다. /끝/